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859-2400 ~ 2410 FAX: 063-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음 7월 26일) 제236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지난해 도내 공기업·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전북도정 발전 적정 역할 수행

부진기관 컨설팅 등
지속적 경영개선 유도
'라' 등급 전년보다 줄어
경제산업지원 유형 기관
모두 '다' 등급 이상 받아



오픈캠퍼스 특강을 진행하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국민연금공단 전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오픈캠퍼스'에 참여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국민연금공단 제공, 관련기사 6면)

전북도는 지난 23일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기업·출연기관의 2018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경영평가는 15개 공기업·출연기관을 경제산업지원(8개)과 사회문화·복지지원(7개)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지표 간 배점을 차등 적용했고, 기관경영전략, 정책준수, 경영효율화, 고객만족도 및 사업성과 등 7개 분야, 50여개 이상 세부지표를 평가에 적용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실현,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윤리경영, 정책준수, 안전관리 등 사회적 가치실현 관련 평가지표에 비중을 두어 평가했다.

심의회 결과 가등급 3개, 나등급 4개, 다등급 7개, 라등급 1개로 결정되었다. 가등급은 생물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 나등급은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남원의료원, 다등급은 전북개발공사, 테크노파크, 자동차용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인재육성재단, 국제교류센터, 라등급은 문화관광재단이 결정됐다.

전반적으로 도 공기업·출연기관은 설립목적과 고유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관이 담당하는 각 분야에서 도정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부진기관 컨설팅 등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한 결과 라등급 이하 기관이 전년대비 줄어들

었으며, 경제산업지원 유형에 속한 기관들은 모두 다등급 이상을 받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출연기관의 노력을 짐작하게끔 했다.

또한, 분야별 평가결과에서도 평가 지표 7개 분야 중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지적사항의 개선정도(이행도)에서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여 경영평가를 통한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채용 관련 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점을 받은 경우가 있었으며, 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해 고객관리 및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함도 나타났다.

도에서는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과 연계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수립·보고하게 하여 경영성과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은 120%~0%, 기관 성과급 규모는 130~70%로 차등 지급되며 기관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다. 특히 라등급 이하 기관의 기관장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내년 기관장 연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기준 인상률의 2배에서 △2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라등급 이하 기관의 기관장은 연봉이 삭감되게 된다.

또한, 평가결과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수행기관에서 경영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12월중에 기관장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직접 보고토록 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라등급 이하 기관은 차년도에 정원 증원을 제한하고 위반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직원 임금 인상률도 일정부분(호봉승급분 범위)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의 임무와 기능, 전략과 사업성과 등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경영개선을 유도하여 도정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내달 26일 개최

세계 3대 투자자 집 로저스 회장 기조연설
금융 전문가 모여 금융산업 발전 방향 모색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주최하는 '2019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가 9월 2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는 금융시장의 인디애나 존스로 불리는 세계 3대 투자자 집 로저스 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요즈마 그룹의 이갈 에를리히 회장, 국민연금연구원의 최영민 팀장, 울파캐피탈파트너스의 롤랜드 한터코너너 파트너 등 국내외

금융 유명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혁신금융 전략을 논의하고 전북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국제행사는 미래 금융도시 전북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컨퍼런스 사전등록은 9월 20일까지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www.jfic.or.kr)를 통해 선착순 접수하며 사전등록 경품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김진성 기자

'도내 강마을, 수산 특화로'

전북연구원 이수브리핑
"내수면 생산 기반 현대화 수산물 요리 체험 등 개발"

정부가 내수면 어업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강마을재생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은 내수면 생산 기반의 현대화와 수산물 요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 개발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지난 23일 이수브리핑 '강마을재생사업으로 내수면 강마을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자'(통권 204호)를 통해 '수산 특화, 체험·관광 복합형' 강마을을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의 내수면 생산 규모는 전국 1위, 생산량은 2위 등 경쟁력이 높아 열악한 생산 여건과 중저수역 개선 등 생활SOC 지원 사업의 성격을 지닌 강마을재생사업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산 특화, 체험·관광 복합형'은 강마을재생사업의 최우선 목적인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 생산 기반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을 뜻한다.

수산 특화 추진 방향은 내수면 어종 생산 기반과 가공 시설 현대화 추진, 내수면 어종 생산자 거점 고도화, 내수면 어종 생산자와 거주자 직접 협력 등이다. 체험·관광 추진

방향으로는 물고기 잡기와 먹이주기, 물고기 생태환경 견학 등내수면 어종 생산 연계 체험, 수산물 요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또 도내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 연구 개발 병행 추진 필요성도 제시했다.

강마을재생사업은 강마을 현대화를 통해 내륙어촌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 국민 여가수요 증가에 따른 내륙어촌의 매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어촌뉴딜 300 사업 일환으로 강마을 5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고 역량 강화, 수산 거점 현대화, 특화사업 등 1개소 당 50~7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의 내수면 어업계는 모두 88개소가 조직돼 있으며 지역별로는 김제시 36개소, 진안군 22개소, 부안군 17개소, 고창군 4개소, 완주군·임실군 각 3개소, 군산시·익산시·남원시 각 1개소 등이다.

전북연구원 나정호 박사는 "수산 특화, 체험·관광형 강마을을 재생 사업은 내수면 어업 생산자의 어업 소득과 어업의 소득 창출로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귀어귀촌 시즌2를 통해 수산물 가공·활용 중심의 신규 일자리와 스타트업 창업 등을 통한 내수면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